

# Narrative Retelling Abilities of Kindergarteners Considering Early Literacy and Language Skills

Jimok Eom<sup>a</sup>, Haerin Cheon<sup>a</sup>, Jaejin Jang<sup>a</sup>, Soyeong Pae<sup>b</sup>

<sup>a</sup>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Graduate School of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sup>b</sup>Division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Institute of Audiology & Speech Pathology,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Correspondence: Soyeong Pae, PhD  
Division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Institute of Audiology & Speech Pathology,  
Hallym University, 1 Hallymdaehak-gil, Chuncheon  
24252, Korea  
Tel: +82-33-248-2214  
Fax: +82-33-256-3420  
E-mail: spae@hallym.ac.kr

Received: July 4, 2024  
Revised: August 22, 2024  
Accepted: August 22, 2024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arrative retelling abilities of 5-year-old children at risk of narrative development, early literacy, and language skills focusing on story grammar, linguistic cohesive devices, and semantic-grammatical index. **Methods:** Narrative Retelling production using KONA was conducted on a total of fifty kindergarten children, 10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D), 10 at risk of developmental dyslexia (DD), 10 at risk of narrative discourse (ND), 10 at risk of narrative discourse and early literacy (ND·DD), and 10 at risk of early literacy and language as well as narrative discourse to compare the production of story grammars, linguistic cohesive markers, and use of linguistic indicators total number of words (NTW), number of grammatical morphemes, mean length of T-units in morpheme (MLT-m), grammatical morpheme error rate (GME) between groups. **Results:** ND, ND·DD and ND·DD·SLI groups showed lower performance in producing story grammars, linguistic cohesive markers, NTW, and number of grammatical morphemes compared to the TD and DD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he number of inappropriate uses of linguistic cohesive devices, MLT-m, and grammatical morpheme error rate. **Conclusion:** The ND·DD·SLI group with poor semantics and grammar showed significantly lower narrative retelling ability. This suggests that early intervention may be beneficial for children at risk for difficulties in language and narrative development. The ND group with good semantics and grammar was identified with their low narrative retelling abilities. In addition to typical development in semantics and grammar, there were children at risk of narratives with low abilities in early literacy. In addition to language skills, we need to screen and identify narrative abilities considering early literacy skills during the kindergarten period.

**Keywords:** Preschool narrative retelling, Story grammars, Linguistic cohesive devices, Early literacy, NTW, Grammatical morpheme error rate

영아는 첫 낱말 사용 이후 두 단어 조합을 시작하며, 이는 세상과의 소통 범위를 확장하는 이정표로 작용한다. 두 살 이후 낱말을 연결하고 형태소를 붙여 문장을 사용(Pae & Lee, 1996)하기 시작하며, 이는 초기 이야기 발달의 토대를 형성한다. 초기 언어 발달 단계의 아동은 자기 중심적인 어휘를 사용하나(Caselli et al., 1995; Chang-Song, 2004; Choi, Seo, & Pae, 2001; Hao, Shu, Xing, & Li, 2008; Lee, Chang-Song, Choi, & Lee, 2009)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하는 언어의 범위와 수준을 점차 확장시킨다(Gopnik, 1996; Tardif, Gelman, & Xu, 1999). 학령전기 아동이 사용하는 구

문은 대화와 같은 구어적 담화로 이어지고, 학령기에 이르러 이야기·설명하기로 나타나는 문어적 담화는 쓰기와 작문으로 연결된다(Kim & Kim, 2011). 내러티브 능력은 언어 발달의 중요한 기술로 사건 간의 논리적, 시간적, 인과적 관계를 추론하고, 주변 세계에 대한 지식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Duinmeijer, de Jong, & Schepers, 2012). 이야기 구성은 논리구조와 상위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의미·구문·형태·화용 등 언어요소의 총체적인 활용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더 나아가 이야기는 단순한 의사소통 기능뿐만 아니라 이야기 회상산출이나 과거 경험 이야기를 통해 아동의 언

어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Botting 2002; Miniscalco, Hagberg, Kadesjö, Westerlund, & Gillberg, 2007). 또한 이야기 능력은 초기 문해력과 읽기 능력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교에서의 학업적 성공과도 관련된다고 하였다(McCabe & Rollins, 1994). 학령기에 이르면 보다 수준 높은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속하게 되고 복잡한 구조의 이야기, 설명하기, 설득하기와 같은 담화 능력이 중요해진다. 이야기는 학령기 이후 문해력과 학업성취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Bishop & Edmundson, 1987) 학령전기 아동의 이야기 발달과 성취 수준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 Stadler와 Ward (2005)는 이야기 기술이 시간에 따라 발전하며 첫째, 이야기는 구어 발달의 유용한 도구이고 둘째, 이야기는 읽기·쓰기 능력과 다리를 형성하여 학문적 성취를 예측하며 셋째, 이야기가 여러 개념 발달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가치를 주장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야기 발달은 학령전기 아동의 언어 발달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업수행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척도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학령전기 아동의 이야기 수행력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아동의 이야기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Merritt과 Liles (1987)는 이야기생성(Story Generation) 과제, 회상산출 과제(Story Retelling), 이야기 이해(Story Comprehension) 과제를 실시하였고 국내 연구에서는 이야기 회상산출 과제를 이용하여(Kang, Kang, & Lee, 2024; Kim, Shin, Lee, & Pae, 2007; Kim & Yim, 2023; Kwon & Pae, 2006)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야기 회상산출에서는 구조화된 이야기가 주로 제공되었다. 구조화된 이야기는 Stein과 Glenn (1979)에 의해 확인되었고 Merritt과 Liles (1989)에 에피소드 시퀀스가 점수화 되었다. 또한 산출한 전체 이야기 속에서 문장 간의 연결을 긴밀히 사용하는 응집력을 알아보는 것으로도 아동의 이야기 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 문장을 연결해주는 결속표지는 문법적 결속(지시어, 대용, 생략, 비교), 어휘적 결속(반복어, 동의어, 상하위어), 논리적 결속(문장 간 시간, 인과, 대조, 부가)(Halliday & Hasan, 1976, as cited in Kwon & Pae, 2006)으로 나뉜다. 아동의 언어 능력과 관련한 이야기 연구(Yang & Kim, 2021)에서는 의미(총 낱말 수)·구문 능력(문법 오류율)을 측정하는 정량적 평가로 이야기 능력을 살펴보았다.

단순언어장애아동(Duinmeijer et al., 2012)뿐만 아니라 일반, 단순언어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등 다양한 집단의 이야기 수행능력(Norbury & Bishop, 2003)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반 아동의 이야기(Kim & Hong, 2001; Kim, Shin et al., 2007; Kim, 2013; Lee & Lee, 2010)와 언어장애

아(Pae & Lee, 1996), 단순언어장애(Kim & Lee, 2021; Kim & Pae, 2004; Kim & Yim, 2023), 자폐스펙트럼장애(Cho & Lee, 2017; Kwon & Pae, 2009; Park & Lee, 2006), 지적장애(Cho & Choi, 2010; Kim, 2009), 학습장애(Kim, Ahn, & Seo, 2007; Yang & Kim, 2021), ADHD (Ban & Seo, 2015; Lee, Y. K., 2010; Lee & Choi, 2009), 다문화 가정(Pae, Kwon, Jin, Jun, & Kwak, 2010) 아동들의 이야기 능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의미·문법에서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일반 아동은 언어 발달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과 비교하여 더 긍정적인 수행을 보인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일반 아동은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비교하여 이야기 산출 및 회상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더 많은 이야기문법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Pae, 2004). 일반 아동과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이야기를 비교한 연구에서 일반 아동은 언어학습장애 아동보다 MLC-w (C-unit 당 평균 낱말 수), 종속절 사용률, 구문 복잡성에서 더 높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 Kim, 2021). 이처럼 국내·외 연구들은 언어 또는 문해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과 비교하여 높은 일반 아동의 이야기 수행력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Channell, Loveall, Connors, Harvey와 Abbeduto (2018)는 4세부터 21세 사이 일반 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샘플링을 분석한 횡단연구를 진행하여 다양한 연령대 별로 일반적인 이야기 발달 척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반 아동 중에서도 이야기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야기 수행력을 확인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앞둔 유치원 시기 5세 아동에게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초기 문해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한다. 이는 Kim과 Pae (2004)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이야기 회상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의 수행이 학령기 학습 장애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 학령기 학업수행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령기 학습장애 아동들은 구어·문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회상하여 말하기와 같은 언어적 상호작용 능력에도 능숙하지 못하다고 한다(Kim & Kang, 2005). 초기 문해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이야기를 포함한 언어전반에서 어려움을 보이는데 학령기 이후, 발달성 난독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의미(Cheon et al., 2021; Cheon, Yu, & Pae, 2022), 구문(Cho & Kim, 2019; Jung, 2014; Kim, Kang, & Lee, 2023)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야기 능력을 고려한 문해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5세반 아동들의 이야기 회상산출

수행력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 아동의 이야기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학령기 이후 문해력과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대상 집단을 나누어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 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아동의 언어 능력(의미·구문), 초기 문해 능력(읽기·쓰기) 2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5개 하위집단은 일반(<sup>1</sup>TD), 문해고위험(<sup>2</sup>DD), 이야기고위험(<sup>3</sup>ND), 이야기·문해고위험(<sup>4</sup>ND·DD), 이야기·문해·언어고위험(<sup>5</sup>ND·DD·SLI)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집단 간 <sup>1</sup>TD, <sup>2</sup>DD, <sup>3</sup>ND, <sup>4</sup>ND·DD, <sup>5</sup>ND·DD·SLI 군의 하위 이야기문법 산출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집단 간 <sup>1</sup>TD, <sup>2</sup>DD, <sup>3</sup>ND, <sup>4</sup>ND·DD, <sup>5</sup>ND·DD·SLI 군의 결속표지 사용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집단 간 <sup>1</sup>TD, <sup>2</sup>DD, <sup>3</sup>ND, <sup>4</sup>ND·DD, <sup>5</sup>ND·DD·SLI 군의 언어지표(의미·문법) 사용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유치원 만 5세반에 재원중인 아동에게 언어발달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동은 (1) 한국 비언어지능검사 2판(K-CTONI-2; Park, 2014) 도형척도 표준점수 80 이상으로 정상 범주의 지능이며, (2) 시각 및 청각 등 감각적, 신경학적 문제가 없고 보호자로부터 정서·행동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아동으로 선별하였다. 이야기 영역은 한국어 이야기 평가(KONA; Kwon, Jin, & Pae, 2016) 결과 이야기문법 회상률 -1 SD 이상에 해당하면 이야기 통과, -1 SD 미만은 이야기 미통과, 문해 영역은 강원도 난독 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사업의 난독 고위험군 선별검사(Shin, 2019)의 의미/무의미 낱말 읽기·쓰기 과제 결과 2개 영역에서 모두 -1 SD 이상은 문해 통과, 2개 중 1개 이상 영역에서 -1 SD 미만은 문해 미통과, 언어 영역은 한국판 핵심언어 임상평가 유치원2(K-CELF Preschool2; Pae, Yoon, Seol, & Jang, in press)의 문장이해·표현어휘, 형태소구조, 수용어휘력 검사(REVT-R; Kim, Hong, Kim, Jang, & Lee, 2009) 결과 4개 소검사 중 3개 이상 영역에서 -1 SD 이상은 의미·문법 통과, 4개 소검사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1 SD 미만은 의미·문법 미통과로 분류하였다. 선별된 아동 중 1) 일반(TD)은 이야기, 문해, 의미·문법 통과(N=10), 2) 문해 고위험군(DD)은 문해 미통과(N=10), 3) 이야기 고위험군(ND)은 이야기 미통과(N=10), 4) 이야기·문해 고위험군(ND·DD)은 이야기, 문해 미통과(N=10), 이야기·문해·언어 고위험군(ND·DD·SLI)은 이

야기, 문해, 언어 미통과(N=10) 5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비교 집단의 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성별( $F_{(4,45)} = 1.023, p = .406$ ), 생활일령( $F_{(4,45)} = 1.680, p = .171$ ), 음운기억( $F_{(4,45)} = 2.549, p = .052$ )에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이야기 평가 도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 별 아동의 이야기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이야기 평가(KONA; Kwon et al., 2018)를 사용하여 학령전 아동의 이야기 평가 ‘그네·공 이야기’ 회상산출 과제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조용한 장소에서 1:1로 앉아 5장 그림 컷을 아동에게 제시하였다. “여기 그림을 보세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따가 똑같이 다시 이야기해 주어야 해요. OO이가 이야기 하는 것을 녹음해서 친구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라고 말하고 내용을 읽어주고 아동 반응을 녹음한 뒤 내용을 전사하여 이야기를 분석하였다. 사용한 하위 이야기문법 수, 결속표지 사용 수는 KONA 검사도구 지침서에 제공된 기준에 따라 채점하였다. 이야기회상 전사자료는 추가로 KLA (Korean Language Analysis; Pae, Ha, & So, 2016)를 사용하여 의미(NTW)·문법 지표(문법 형태소 빈도 수, MLT-m, 문법형태소 오류율)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야기 분석 채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분석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자 외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 2명이 전체 아동 수 20%에 해당하는 1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이야기 전사, 이야기 문법, 결속표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 간 이야기 평가 신뢰도는 각각 94.12%, 94.21%, 91.87%로 나타났다.

###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하위 이야기문법, 결속표지, 언어지표 사용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후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5.0을 사용하였다.

## 연구결과

### 집단 간 하위 이야기문법 사용 수

집단 간 하위 이야기문법 산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sup>1</sup>TD, <sup>2</sup>DD, <sup>3</sup>ND, <sup>4</sup>ND·DD, <sup>5</sup>ND·DD·SLI)을 독립 변인으로 하위 이야기문법 사용 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배경( $F_{(4,45)} = 8.042, p = .015$ , 계기사건( $F_{(4,45)} = 7.346, p = .010$ ), 내적반응( $F_{(4,45)} = 6.829$ ,

$p=.000$ ), 시도( $F_{(4,45)}=14.588, p=.000$ ), 결과( $F_{(4,45)}=9.421, p=.000$ ), 배경·결과 합산( $F_{(4,45)}=13.759, p=.000$ ), 계기사건·내적반응·시도 합산( $F_{(4,45)}=13.945, p=.000$ )으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하위 이야기문법 산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TD, <sup>2</sup>DD 집단이 하위 이야기문법 중 내적반응, 시도, 결과, 배경·결과, 계기사건·내적반응·시도 요소에서 나머지 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D 집단은 모든 하위 이야기문법에서 가장 많은 산출을 보이며 <sup>3</sup>ND, <sup>4</sup>ND·DD, <sup>5</sup>ND·DD·SLI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결속표지 사용: 총 결속표지 사용 수, 적절한 결속표지 사용 수, 부적절한 결속표지 사용 수**

집단 간 결속표지 사용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총 결속표지 사용 수( $F_{(4,45)}=5.114, p=.002$ )와 적절한 결속표지 사용 수( $F_{(4,45)}=5.115, p=.002$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수행력 차이가 가장 큰 'TD, <sup>3</sup>ND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부적절한 결속표지 사용 수는 각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_{(4,44)}=.796, p=.534$ ).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1.** One-way ANOVA on comparison of the number of story grammar by groups

	<sup>1</sup> TD	<sup>2</sup> DD	<sup>3</sup> ND	<sup>4</sup> ND·DD	<sup>5</sup> ND·DD·SLI	F	Post hoc
Setting	1.40 (.84)	1.30 (.48)	.50 (.53)	.40 (.52)	.30 (.48)	8.042*	1>3 1,2>4 1,2>5
Initiation event	2.80 (1.32)	2.10 (1.29)	.70 (1.06)	1.00 (.67)	.70 (1.06)	7.346***	1>3 1>4 1>5
Internal response	1.80 (1.32)	1.70 (1.25)	.10 (.32)	.10 (.32)	.70 (1.25)	6.829***	1,2>3 1,2>4
Attempt	2.30 (.82)	1.80 (.63)	.80 (.79)	.70 (.68)	.30 (.48)	14.588***	1,2>3 1,2>4 1,2>5
Consequence	2.80 (.92)	2.30 (.95)	.80 (.63)	.80 (1.03)	.90 (1.29)	9.421***	1,2>3 1,2>4 1>5
Setting · Consequence	4.20 (1.31)	3.60 (1.35)	1.30 (.95)	1.20 (1.23)	1.20 (1.40)	13.759***	1,2>3 1,2>4 1,2>5
Initiation event · Internal response · Attempt	6.90 (2.89)	5.60 (2.55)	1.60 (1.58)	1.80 (1.23)	1.70 (2.06)	13.945***	1,2>3 1,2>4 1,2>5
Number of total story grammar	11.10 (3.00)	9.20 (2.86)	2.90 (2.13)	3.00 (2.00)	2.90 (3.31)	21.903***	1,2>3 1,2>4 1,2>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up>1</sup>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sup>2</sup>DD= At risk of developmental dyslexia, <sup>3</sup>ND= At risk of narrative discourse children, <sup>4</sup>ND·DD= At risk of narrative discourse children · at risk of developmental dyslexia, <sup>5</sup>ND·DD·SLI= At risk of narrative discourse children · at risk of developmental dyslexia ·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 $p < .05$ , \*\*\* $p < .001$ .

**Table 2.** One-way ANOVA on comparison of the number of the linguistic cohesive devices by groups

	<sup>1</sup> TD	<sup>2</sup> DD	<sup>3</sup> ND	<sup>4</sup> ND·DD	<sup>5</sup> ND·DD·SLI	F	Post hoc
Total linguistic cohesive devices	10.50 (4.80)	9.60 (3.57)	4.10 (4.28)	5.60 (3.72)	5.00 (3.71)	5.114**	1>3
Correct linguistic cohesive devices	10.50 (4.80)	9.50 (3.66)	4.10 (4.28)	5.60 (3.72)	4.90 (3.57)	5.115**	1>3
Incorrect linguistic cohesive devices	.00 (.00)	.11 (.33)	.00 (.00)	.00 (.00)	.10 (.32)	.796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up>1</sup>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sup>2</sup>DD= At risk of developmental dyslexia, <sup>3</sup>ND= At risk of narrative discourse children, <sup>4</sup>ND·DD= At risk of narrative discourse children · at risk of developmental dyslexia, <sup>5</sup>ND·DD·SLI= At risk of narrative discourse children · at risk of developmental dyslexia ·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 $p < .01$ .



**Table 3.** One-way ANOVA on comparison of linguistic indicator by groups

	<sup>1</sup> TD	<sup>2</sup> DD	<sup>3</sup> ND	<sup>4</sup> ND·DD	<sup>5</sup> ND·DD·SLI	F	Post hoc
<b>Semantics</b>							
NTW	54.90 (12.92)	46.70 (11.38)	24.80 (13.20)	27.50 (13.60)	24.80 (12.57)	12.206***	1,2>3 1,2>4 1,2>5
<b>Grammar</b>							
Number of grammatical morphemes	54.50 (11.47)	45.40 (11.43)	25.10 (12.31)	23.70 (9.48)	22.60 (13.00)	16.076***	1,2>3 1,2>4 1,2>5
MLT-m	9.88 (1.91)	9.92 (1.25)	7.93 (2.55)	8.86 (1.74)	9.28 (2.23)	1.717	
Grammatical morpheme error rate	.36 (.76)	.00 (.00)	.70 (1.50)	.37 (1.17)	1.83 (4.44)	1.04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up>1</sup>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sup>2</sup>DD= At risk of developmental dyslexia, <sup>3</sup>ND=At risk of narrative discourse children, <sup>4</sup>ND·DD=At risk of narrative discourse children · at risk of developmental dyslexia, <sup>5</sup>ND·DD·SLI= At risk of narrative discourse children · at risk of developmental dyslexia ·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p*<.01.

**언어지표: 의미(NTW)·문법(문법형태소 빈도 수, MLT-m, 문법형태소 오류율) 사용**

집단 간 아동들의 언어(의미·문법)지표의 양적인 사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NTW ( $F_{(4,45)} = 12.206, p = .000$ )와 문법형태소 빈도 수( $F_{(4,45)} = 16.076, p = .000$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sup>1</sup>TD, <sup>2</sup>DD 순으로 <sup>3</sup>ND, <sup>4</sup>ND·DD, <sup>5</sup>ND·DD·SLI 집단보다 NTW, 문법형태소 빈도 수에서 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LTm ( $F_{(4,45)} = 1.717, p = .163$ ), 문법형태소 오류율( $F_{(4,45)} = 1.040, p = .397$ )에서는 집단 간 수행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5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각 집단의 하위 이야기문법, 결속표지, 언어지표 사용력을 비교하였다. 집단 간 하위 이야기 문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sup>3</sup>ND, <sup>4</sup>ND·DD, <sup>5</sup>ND·DD·SLI 집단이 <sup>1</sup>TD, <sup>2</sup>DD 집단보다 하위 이야기 문법을 더 적게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언어장애(Kim & Pae, 2004; Kim & Yim, 2023; Pae & Lee, 1996), 난독(Kang et al., 2024)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하위 이야기문법 수행력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sup>1</sup>TD 집단은 가장 높은 수행력을 보이는 반면, 초기문해, 의미·문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가진 <sup>5</sup>ND·DD·SLI 집단은 이야기 과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다. 한편 <sup>3</sup>ND 집단은 의미·문법, 초기문해에서 어려움이 없었지만 하위 이야기문법에서 <sup>1</sup>TD 집단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Appendix 1). 이를 통해 언어 능력에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이야기

산출에는 어려움이 보이는 집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의 아동들을 유치원 시기부터 조기 선별하여 학령기에 다가올 어려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sup>2</sup>DD와 <sup>4</sup>ND·DD 집단은 초기 문해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동일하나 두 집단의 전반적인 이야기 산출 능력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령전기 문해고위험군 중에서 <sup>5</sup>ND·DD·SLI 집단의 경우 언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교적 빠른 선별이 이루어지고 조기 중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언어에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는 <sup>2</sup>DD 집단과 <sup>4</sup>ND·DD 집단은 상대적으로 발견이 늦어져 초기 문해의 어려움이 학령기 시기 해독(Decoding)에서 담화이해(text comprehension)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Kang et al., 2024; Kim & Kim, 2011; Lee, Jang, Won, & Pae, 2021; Lee & Pae, 2019). 본 연구에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이야기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는 <sup>2</sup>DD 집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sup>2</sup>DD, <sup>4</sup>ND·DD 집단처럼 초기문해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아동은 문해 능력의 확인과 함께 이야기 과제가 포함된 모니터링 또는 심화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sup>2</sup>DD 집단의 존재를 고려하였을 때 초기문해 능력의 확인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집단 간 결속표지 수행력의 차이는 <sup>1</sup>TD, <sup>3</sup>ND 집단 사이에서만 볼 수 있었다. KONA ‘그네·공 이야기’ 회상산출 과제의 특성상 아동이 언어적인 결속표지를 사용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도 보인다(Appendix1 참고). 부적절한 결속표지 사용 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야기문법 사용이 완성되지 않은 <sup>4</sup>ND·DD, <sup>5</sup>ND·DD·SLI 집단에서 결속표지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고 <sup>2</sup>DD, <sup>5</sup>ND·DD·SLI 집단의 일부 아동에서만 결속표지 사용 오류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아동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결속표지 사용이 개인차에 기인한 것인지 보다 정

확한 확인을 위하여 더 많은 아동의 이야기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담화 결속장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에서 5세 0개월-5세 11개월 사이의 아동들이 보여주었던 연구결과(Lee & Lee, 2010)와도 일치한다. KONA 그네·공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결속표지 중 연결어미와 대응어는 4세 이후부터, 접속부사는 5세경 활발한 산출이 이루어지고 보조사 사용 또한 3세 이후로 과반수의 아동이 적절한 산출을 한다(Lee & Hwang, 2002). 따라서 5세는 결속표지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로, 대부분 집단에서 이미 높은 정확률로 결속표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언어지표 사용에서도 <sup>3</sup>ND, <sup>4</sup>ND·DD, <sup>5</sup>ND·DD·SLI 집단이 <sup>1</sup>TD, <sup>2</sup>DD 집단에 비해 더 유의하게 적은 NTW, 문법형태소 빈도수를 사용하여, 앞서 이야기문법 산출에서 나타난 집단 간 수행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양적인 언어지표로도 이야기문법 산출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가진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MLTm은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4세 이후 아동들의 평균발화 길이의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Kim, 1997; Kwon & Jeong, 1999; Lee, H. R., 2010)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5세 아동들의 MLTm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것도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MLTm이 유용한 언어지표이지만 5세 이후 시기에는 발화 길이가 이야기능력을 평가하는 언어적 지표로서 타당성이 낮아지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회상산출을 하도록 과제를 제공하여, 연구 집단 간 지능과 음운기억 수준이 통제되어 비슷한 평균발화 길이를 보인 것으로도 사료된다. 언어적인 어려움을 가진 집단의 경우 자발 산출에서 발화길이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과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야기 회상산출의 MLTm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제 이야기 산출 수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인 이야기 산출에서 수행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음운기억이 이야기 회상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법형태소 오류율에서는 <sup>5</sup>ND·DD·SLI 집단이 가장 높은 문법형태소 오류율(1.83%, SD=4.44)을 보이고 있으나 모든 집단 내 문법형태소 오류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령전기 아동의 이야기를 분석할 때 문법 형태소 오류율을 정량적 수행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회상산출과 함께 자발적인 이야기 산출에서의 수행을 살펴보거나, 하위 이야기문법·결속표지와 NTW·문법형태소 빈도수와 같은 언어지표 사용 능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음운기억 수준이 통제되었으나, 아동의 이야기 회상산출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집단 아동의 기억과 언어적 결함을 함께 설명한다(Conti-Ramsden, Ullman, & Lum, 2015; Hsu & Bishop, 2014; Knowlton & Squire, 1995; Lum, Conti-Ramsden, Page, & Ullman, 2012). 아동이 지남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Hoerl, 2007) 발달성 언어장애(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 DLD) 아동의 경우 단기기억(short-term memory)과 작업기억(working memory)에서 주된 결함을 보이지만 구어 서술기억(declarative memory),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에서도 손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Jackson, Leitão, Claessen, & Boyes, 2020). 또한 SLI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하여 절차기억의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Lum et al., 2012; Conti-Ramsden et al., 2015). 이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순서적으로 연결하여 내용을 표현하는 이야기에서 절차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의 어려움이 동반되는 <sup>5</sup>ND·DD·SLI 집단의 아동들에게 절차기억은 이야기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므로 이야기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정한 집단의 기준에 따라 집단별 10명, 총 50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의 수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대상자의 이야기 회상산출을 확보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야기 회상산출만으로는 이야기 산출 능력을 살펴보는 데 제약이 따르므로 자발 발화 산출과 함께 살펴볼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5세 아동으로 언어 능력의 발달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4-6세 종단연구로 표본을 확장하여 이야기 회상산출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일반 아동 중 이야기 산출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아동을 조기선별하고 초기 문해·이야기 수행력이 낮은 아동은 유치원 시기에 문해·이야기 능력에 대한 심화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Ban, J. J., & Seo, K. H. (2015). Narrative production abilities analysis of children with ADHD and school-age children through story retelling.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4(2), 255-275.
- Bishop, D. V. M., & Edmundson, A. (1987). Language-impaired 4-year-olds: Distinguishing transient from persistent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52(2), 156-173.
- Botting, N. (2002). Narrative as a tool for the assessment of linguistic and

- pragmatic impairments. *Child Language Teaching & Therapy*, 18(1), 1-21.
- Caselli, M. C., Bates, E., Casadio, P., Fenson, J., Fenson, L., Sanderl, L., & Weir, J. (1995). A cross-linguistic study of early lexic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10(2), 159-199.
- Chang-Song, Y. K. (2004). Early lexical development of Korean infants: 8-17 month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3(1), 77-99.
- Channell, M. M., Loveall, S. J., Connors, F. A., Harvey, D. J., & Abbeduto, L. (2018). Narrative language sampling in typic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linical trial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27(1), 123-135.
- Cheon, H., Yu, H., & Pae, S. (2022). Text reading fluency error analysis of Korean 1st and 2nd graders with developmental dyslexia considering semantic knowledge.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7(3), 483-494.
- Cheon, H., Yu, H., Won, H., Eom, J., Lee, K., & Pae, S. (2021). Test reading fluency of elementary 1st and 2nd graders of developmental dyslexia depending on vocabulary level. *Proceedings of the 2021 conference of the 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 125-128.
- Cho, E. H., & Choi, Y. (2010). The narrative writing abilities of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norm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2(2), 5-24.
- Cho, H. J., & Lee, H. R. (2017). Spoken and written story production ability of school-aged children with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2(1), 90-100.
- Cho, M., & Kim, M. (2019).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syntactic awareness characteristics and reading comprehension for school-aged children with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in grades 3-4.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4(1), 31-46.
- Choi, E., Seo, S., & Pae, S. (2001). A study of expressive vocabulary of Korean children at 1;1 - 2;7 years of ag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6(1), 1-16.
- Conti-Ramsden, G., Ullman, M. T., & Lum, J. A. (2015). The relation between receptive grammar and procedural, declarative, and working memory in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Frontiers in Psychology*, 6, 145213.
- Duinmeijer, I., de Jong, J., & Scheper, A. (2012). Narrative abilities, memory and attention in children with a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Communication Disorders*, 47(5), 542-555.
- Gopnik, A. (1996). The scientist as child. *Philosophy of Science*, 63(4), 485-514.
- Hao, M., Shu, H., Xing, A., & Li, P. (2008). Early vocabulary inventory for Mandarin Chinese.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728-733.
- Hoerl, C. (2007). Episodic memory, autobiographical memory, narrative: On three key notions in current approaches to memory development. *Philosophical Psychology*, 20(5), 621-640.
- Hsu, H. J., & Bishop, D. V. (2014). Sequence-specific procedural learning deficits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Developmental Science*, 17(3), 352-365.
- Jackson, E., Leitão, S., Claessen, M., & Boyes, M. (2020). Working, declarative, and procedural memory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Research*, 63(12), 4162-4178.
- Jung, K. H. (2014). Morphological awareness and reading ability of school-aged children from grades 1 to 3.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9(1), 21-30.
- Kang, D. Y., Kang, E. H., & Lee, J. Y. (2024). Story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dyslexic children in second grade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33(1), 35-46.
- Kim, E., & Lee, H. (2021). Gesture production in a story recalling task of preschool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6(2), 308-320.
- Kim, G. W., Ahn, S. W., & Seo, Y. K. (2007). A comparative study on story composing ability between children with normal language ability and with language learning disabilit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 Practice*, 8(4), 655-677.
- Kim, H. (2013). A study on the personal narrative of children in the 3-year-old class shown in the conversational activities about the kindergarten experienc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5(2), 183-208.
- Kim, H., & Kang, J. (2005). A comparison on the story grammar and cohesion shown in telling and writing of normal and language-learning disabl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9(4), 43-60.
- Kim, J. S., & Kim, J. (2011). Characteristics of syntactic ability of school-ag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expository and narrative task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16(4), 540-558.
- Kim, J. Y. (2009). The story retelling 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1(2), 143-160.
- Kim, K., Shin, J., Lee, K. H., Pae, S. (2007). Age-dependent story retelling abilities in preschool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12(1), 1-15.
- Kim, M. J., & Kim, J. M. (2011). Noun development in school-ag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expository and narrative texts. *Journal of Speech-Lan-*

- guage & Hearing Disorders, 20(4), 1-21.
- Kim, S. H., Kang, E. H., & Lee, J. Y. (202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n morphological awareness in secon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dyslexia.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32(1), 17-23.
- Kim, Y. T. (1997). A basic study on utterance length in Korean 2-4 year ol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2(1), 5-25.
- Kim, Y. T., & Hong, G. (2001). A study of the acquisition of grammatical markers used by Korean children in a story retelling task: Usage and error type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2), 111-131.
- Kim, Y. T., Hong, G. H., Kim, G. H., Jang, H. S., & Lee, J. Y. (2009).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Kim, Y., & Pae, S. (2004). Narrative abilities of Korean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41-58.
- Kim, Y., & Yim, D. (2023). The influence of language and cognitive skills on narrative retelling for preschoolers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8(4), 703-717.
- Knowlton, B. J., & Squire, L. R. (1995). Remembering and knowing: Two different expressions of declarative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 Cognition*, 21(3), 699-710.
- Kwon, D. H., & Jeong, B. S. (1999). A study of development of complex sentences in the normal children aged from 2 to 5 year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8(1), 157-173.
- Kwon, E., & Pae, S. (2006). Three measures of narrative discourse ability for Korean school-aged children in a story-retelling task.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11(2), 72-89.
- Kwon, E., & Pae, S. (2009). Measuring narrative discourse ability of school-aged children with Asperger's syndrome in a story-retelling task: Story composition and cohesive device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8(2), 65-84.
- Kwon, E., Jin, Y. S., & Pae, S. (2016). *Korean narrative assessment*. Seoul: Hakjisa.
- Lee, C. Y., & Pae, S. (2019). Korean 1st graders' language comprehension on three tasks: Oral reading, silent reading and listening.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8(2), 67-75.
- Lee, H. R. (2010). Development of sentence structures in Korean children age of 3-6 year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9(1), 179-192.
- Lee, H. R., & Lee, S. B. (2010). Development of cohesive devices in preschool Korea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15(3), 298-306.
- Lee, H. R., Chang-Song, Y. K., Choi, Y. L., & Lee, S. B. (2009). Lexical acquisition of Korean infants: Characteristics of early expressive vocabular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8(3), 65-80.
- Lee, J., Jang, W., Won, H., & Pae, S. (2021). Text comprehension of Korean developmental dyslexic children considering mode and type of texts.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6(2), 337-347.
- Lee, S. H., & Hwang, M. (2002). The development of three Korean semantic particles-nun, man, do-in 3 to 6 year-ol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7(2), 24-45.
- Lee, Y.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tory recalling and executive functions of children with ADH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15(1), 20-33.
- Lee, Y., & Choi, Y. J. (2009). The abilities of story recalling and story grammar of children with ADHD with or without language impairment. *Special Education Research*, 8(2), 185-201.
- Lum, J. A., Conti-Ramsden, G., Page, D., & Ullman, M. T. (2012). Working, declarative and procedural memory in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ortex*, 48(9), 1138-1154.
- McCabe, A., & Rollins, P. R. (1994). Assessment of preschool narrative skill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3(1), 45-56.
- Merritt, D. D., & Liles, B. Z. (1987). Story grammar ability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language disorder: Story generation, story retelling, and story comprehension.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Research*, 30(4), 539-552.
- Merritt, D. D., & Liles, B. Z. (1989). Narrative analysis: Clinical applications of story generation and story retelling.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54(3), 438-447.
- Miniscalco, C., Hagberg, B., Kadesjö, B., Westerlund, M., & Gillberg, C. (2007). Narrative skills, cognitive profiles and neuropsychiatric disorders in 7-8-year-old children with late developing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Communication Disorders*, 42(6), 665-681.
- Norbury, C. F., & Bishop, D. V. (2003). Narrative skills of children with communication impair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Communication Disorders*, 38(3), 287-313.
- Pae, S., Ha, S., & So, J. (2016). *Korean language analysis (KLA)*. kla.hallym.ac.kr.
- Pae, S., & Lee, S. H. (1996). A study on Korean children's story production.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1(1), 34-68.
- Pae, S., Kwon, E. G., Jin, Y. S., Jun, H. J., & Kwak, K. J. (2010). Narratives of childre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9(2), 53-72.
- Pae, S., Yoon, H. J., Seol, A. Y., & Jang, S. M. (in press). *Korean version of clinical evaluation of language fundamentals-preschool 2* (K-CELF Preschool2). Seoul: Hakjisa.
- Park, H. (2014). *Korean version of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second edition* (K-CTONI-2). Seoul: Mindpress.
- Park, J. H., & Lee, Y. (2006). Story generation and retelling of children with Asperger's syndrom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11(3), 193-207.
- Shin, G. Y. (2019). Results of support for literacy improvement for developmental dyslexic students in 2019. *Proceedings of the Forum for Gangwondo supporting at risk of developmental dyslexia*, 18-29.
- Stadler, M. A., & Ward, G. C. (2005). Supporting the narrativ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3, 73-80.
- Stein, N. L., & Glenn, C. G. (1979). An analysis of story comprehen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R. Freedle (Ed.).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ing* (pp. 53-120). NJ: Ablex.
- Tardif, T., Gelman, S. A., & Xu, F. (1999). Putting the "noun bias" in context: A comparison of English and Mandarin. *Child Development*, 70(3), 620-635.
- Yang, H. J., & Kim, J. (2021). Comparison of syntactic ability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in narrative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30(4), 43-52.

Appendix 1. 집단별 아동의 '그네·공 이야기' 회상산출 예시 및 채점

	그네 이야기	공 이야기	이야기 문법(개)					결속표지			언어지표			
			S	I·E	I·R	A	<sup>1</sup> C	T	<sup>2</sup> C	I	NTW	NGM	MLTm	GME
TD	엄마랑 민이랑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치만 민이는 텔레비전이 재미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네를 탔어요 근데 민이가 친구를 만나서 그네를 같이 탔어요	돌이랑 **랑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돌이가 차도 쪽으로 공을 던졌어요 그 아저씨가 공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돌이가 넘어지면서 자전거에 쓸렸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돌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2	1	1	1	4	10	10	0	53	52	10.50	0.00
DD	민이가 엄마랑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음) 테레비 재미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네를 타더니 어떤 친구가 같이 그네 타라고 말해주어서 같이 그네 탔어요	어떤 여자친구가 공을 찾길에 던졌는데 어떤 자전거가 나타나자 어떤 남자친구가 그때 부딪혀 가지고 다리에 피가 나가지고 병원으로 같이 갔어요	1	2	1	2	2	14	14	0	43	28	10.14	0.00
ND	(어 먼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재미없어서 그네 탔는데	(음 먼저 어) 돌이랑 (어) 여자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공을) 공을 차도에 던져서 받을 라고 갔는데 (어 음) 어떤 남자가 와서 같이 타자고 했어요 자전거에 부딪혀서 무릎에 피가 나서 병원에 갔어요	1	0	0	0	0	8	8	0	29	33	10.33	0.00
ND· DD	텔레비전을 보다가 텔레비전이 재미없어서 그네를 타다가 민이 친구도 왔는데 같이 그네 탔어요	차도 쪽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차도 쪽으로 공을 날린 다음에 그다음에 자전거랑 같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같이 병원 가자고 했어요	0	1	0	0	0	8	8	0	29	27	7.00	3.70
ND· DD· SLI	민이랑 엄마랑 그네 뭐지? (이제 몰라요) SLI	돌이랑 아저씨 돌이엄마 있어요 (그냥 밴드 붙인 거 아니예요?) 병원에 갔는데 밴드 붙인 거 아니예요?	0	0	0	0	0	0	0	0	14	11	8.33	0.00

S=배경; I·E=계기사건; I·R=내적반응; A=시도; <sup>1</sup>C=결과; T=총결속표지 사용 수; <sup>2</sup>C=적절한 결속표지 사용 수; I=부적절한 결속표지 사용 수; NTW=전체 낱말 수; NGM=문법형태소 빈도 수; MLTm=형태소로 본 평균 T-unit 길이; GME=문법형태소 오류율.

## 국문초록

### 문해·언어 능력을 고려한 유치원 5세반 아동의 이야기 회상산출 특성

엄지목<sup>1</sup> · 천해인<sup>1</sup> · 장재진<sup>1</sup> · 배소영<sup>2</sup>

<sup>1</sup>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청각학과, <sup>2</sup>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유치원 5세반 아동의 이야기 회상 산출 능력이 기초 문해력과 의미·문법 수행력에 따라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 아동을 일반(TD), 문해고위험(DD), 이야기고위험(ND), 이야기 및 문해고위험(ND·DD), 이야기·문해·언어고위험(ND·DD·SLI) 5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10명씩 총 50명에 대한 이야기 회상산출 평가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하위 이야기문법 산출력, 결속표지 사용력, 언어지표 사용력으로 분석하여 집단 간 비교, 대조를 통해 수행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ND, ND·DD, ND·DD·SLI 집단이 TD, DD 집단에 비하여 하위 이야기문법 산출(배경, 결과, 내적반응, 계기사건, 시도), 결속표지 정확률, 언어지표 사용(날말 빈도 수, 문법형태소 빈도 수)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부적절한 결속표지 사용 수, MLTm, 문법형태소 오류율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의미, 문법 수행력이 낮은 ND·DD·SLI 집단은 이야기 회상산출 능력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 문법 수행력이 좋은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ND 집단과 같이 이야기 회상산출 능력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기 선별이 필요하다. 또한 의미, 문법 수행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산출 능력, 초기문해 수행력이 낮은 ND·DD 집단은 유치원 시기에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문해, 이야기 능력에 대한 심화 검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학령전기 이야기 회상산출, 결속표지, 초기문해, 이야기문법, NTW, 문법형태소 오류율

## 참고문헌

- 강다연, 강은희, 이지윤 (2024). 초등 2학년 난독 아동의 이야기 표현 특성. *언어치료연구*, 33(1), 35-46.
- 권도하, 정분선 (1999). 2-5세 유아의 복문 발달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8(1), 157-173.
- 권유진, 배소영 (2006). 이야기 다시말하기(story-retelling) 과제를 통한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이야기 능력. *언어청각장애연구*, 11(2), 72-89.
- 권유진, 배소영 (2009).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이야기 구성 능력: 이야기문법과 결속표지를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18(2), 65-84.
- 권유진, 진연선, 배소영 (2016). *한국어 이야기 평가(KONA)*. 서울: 학지사.
- 김고은, 안성우, 서유경 (2007). 언어학습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이야기 구성능력 비교.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8(4), 655-677.
- 김기순, 신지철, 이기학, 배소영 (2007).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야기 회상 산출 능력. *언어청각장애연구*, 12(1), 1-15.
- 김민정, 김정미 (2011). 설명담화와 경험담화에 나타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명사발달 특성. *언어치료연구*, 20(4), 1-21.
- 김송희, 강은희, 이지윤 (2023). 초등 2학년 난독 아동의 형태소인식 특성 연구. *언어치료연구*, 32(1), 17-23.
- 김영태 (1997).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기초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1), 5-25.
- 김영태, 홍경훈 (2001). 이야기회상과제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조사 사용 분석: 발달적 오류형태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1(2), 111-131.
-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예지, 임동선 (2023). 학령전기 단순언어장애 아동 및 일반 아동의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이야기 회상에 미치는 영향.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8(4), 703-717.
- 김유정, 배소영 (2004).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언어발달아동의 이야기 능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41-58.
- 김은영, 이희란 (2021). 이야기 회상 과제에서 나타난 학령전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제스처 산출 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6(2), 308-320.
- 김자성, 김정미 (2011). 설명과 경험이야기에 나타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구문발달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6(4), 540-558.
- 김지윤 (2009). 경도 지적장애 중학생의 이야기 다시 말하기 능력. *통합치료연구*, 1(2), 143-160.

- 김홍남 (2013). 유치원의 경험 이야기나누기 활동에서 나타난 만 3세반 유아의 일상적 내러티브 특징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15(2), 183-208.
- 김희규, 강정숙 (2005). 언어학습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말하기·쓰기에 나타난 이야기 문법 및 응집구조 비교. *특수교육학연구*, 39(4), 43-60.
- 박지혜, 이윤경 (2006).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이야기 자발적산출 및 회상산출 능력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11(3), 193-207.
- 박혜원 (2014). *한국비언어지능검사-제2판(K-CTONI-2)*. 서울: 마인드프레스.
- 반지정, 서경희 (2015). 이야기 다시 말하기를 통한 ADHD 아동과 일반아동의 이야기 문법 표현능력 및 구문 복잡성 비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255-275.
- 배소영, 권유진, 진연선, 전홍주, 광금주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야기 산출. *언어치료연구*, 19(2), 53-72.
- 배소영, 이승환 (1996). 한국 아동의 이야기 산출 연구 (I). *언어청각장애연구*, 1(1), 34-68.
- 배소영, 윤효진, 설아영, 장승민 (출판예정). *한국판 핵심언어 임상평가 유치원2 (K-CELF Preschool 2)*. 서울: 학지사
- 배소영, 하승희, 소정민 (2016). *한국어발화분석(Korean Language Analysis, KLA)*. kla.hallym.ac.kr.
- 신가영 (2019). 2019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 성과. 강원도 난독학생 지원 포럼 자료집, 8-29.
- 양희재, 김정미 (2021).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기에 나타난 구문 능력 비교. *언어치료연구*, 30(4), 43-52.
- 이승희, 황민아 (2002). 3-6세 한국 아동의 보조사 발달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7(2), 24-45.
- 이윤경 (2010). ADHD 아동들의 이야기 회상산출과 집행기능과의 관계. *언어청각장애연구*, 15(1), 20-33.
- 이윤경, 최윤지 (2009). 언어문제 동반 여부가 ADHD 아동들의 이야기 회상 및 이야기 구조 산출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8(2), 185-201.
- 이정경, 장우정, 원효은, 배소영 (2021). 담화모드와 담화유형을 고려해서 본 초등 고학년 발달성 난독 학생의 담화 이해력.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6(2), 337-347.
- 이조영, 배소영 (2019). 1학년 아동의 문단글 듣기, 낭독, 묵독에 따른 담화 이해력 비교. *언어치료연구*, 28(2), 67-75.
- 이희란 (2010). 학령전 아동의 구문표현력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언어치료연구*, 19(1), 179-192.
- 이희란, 이승복 (2010). 학령 전 아동의 담화결속장치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5(3), 298-306.
- 이희란, 장우경, 최유리, 이승복 (2009). 한국 아동의 어휘 습득: 초기 표현어휘의 특징: 초기 표현어휘의 특징. *언어치료연구*, 18(3), 65-80.
- 장유경 (2004).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8개월-17개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77-99.
- 정경희 (2014). 1-3학년 학령기 아동의 형태소인식과 읽기능력.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9(1), 21-30.
- 조민경, 김미배 (2019). 초등 3-4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구문인식능력 특성과 읽기이해능력과의 상관관계.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4(1), 31-46.
- 조현준, 이희란 (2017). 학령기 고기능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이야기 말하기와 쓰기 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2(1), 90-100.
- 조은호, 최예린 (2010). 경도 지적장애집단과 정상아동집단의 이야기 쓰기능력. *통합치료연구*, 2(2), 5-24.
- 천해인, 유해림, 배소영 (2022). 초등 저학년 발달성 난독 아동의 의미지식에 따른 문단글 읽기유창성 특성 및 오류분석.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7(3), 483-494.
- 천해인, 유해림, 원효은, 엄지목, 이가현, 배소영 (2021). 초등 저학년 난독아동의 어휘수준에 따른 문단글 읽기유창성 특성.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125-128.
- 최은희, 서상규, 배소영 (2001). 1;1-2;6세 한국 아동의 표현어휘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6(1), 1-16.

## ORCID

엄지목(제1저자, 대학원생 <https://orcid.org/0009-0000-3043-9047>); 천해인(공동저자, 대학원생 <https://orcid.org/0000-0001-7713-8436>); 장재진(공동저자, 대학원생 <https://orcid.org/0009-0001-4132-7056>); 배소영(교신저자, 교수 <https://orcid.org/0000-0001-6577-0880>)